

오늘 이 발표는 龍歌를 저 自身이 評價하는데까지는 發展시키지 못하고 다만 過去의 評價方式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더 科學的인 根據下에서 正當한 評價를 내려야 되겠다는 方向提示에서 그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龍歌를 文學的인 面에서 價値評價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가지 評價方式中에서 道德的인 評價, 또는 倫理的인 評價, 이러한 角度에서 밖에는 評價할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倫理的인 評價나 道德的인 評價에 있어서는 이 詩에서 불려진 모든 事實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龍歌를 통해서 表現된 생각, 또는 主張한 생각들을 現代에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式으로 價値評價를 할 것이 아니라, 龍歌의 作家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은 表現과 이와 같은 句節을 통해서 옳게 表現이 됐느냐, 이런데에 道德的인 評價가 可能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面에서 불적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龍歌의 作家들이 意圖했던 그런 國家祖宗의 永遠性이 全篇을 통해서 果然 理想的으로 또는 完全하게 들어 날 수 있었느냐에 對해서는 약간의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 龍飛御天歌의 形式

——醉豐亨의 音樂을 中心으로하여——

李 惠 求

※ 本 發表는 錄音事情으로 要旨로서 代한다.

#### 1. 龍飛御天歌의 一章

##### 가. 杖鼓型

#### 醉豐亨의 杖鼓型

鼓 불	搖 휘	鞭 기론	鼓 남	鞭 근	雙	鞭 근	鼓 르매	鞭 아니	鞭 뿔	雙 씨	鼓 곶
雙 도	鼓 코	鞭 여름	雙 하늘	雙 니	雙	鼓 시	雙 미	鞭 기론	鼓 드	鞭 뿔	鼓 르른
鞭 마	雙 드래	鞭 아니	鞭 그칠	鼓 씨	雙 내히	雙	搖 이러	鞭 바르래	雙 가	鞭 느	鼓 니

(餘音)

鞭 鞭 鼓 雙 雙 鞭

致和平의 杖鼓型

鞭 불휘	鼓 기픈	雙 남	鼓 곤	鞭	雙 마래	鼓 아니그	鞭 출씨	鼓 내히	雙
雙 부르매	鞭 이니	鼓 릴	鞭 씨	雙 꽃도	鼓 이러	鞭 바래	雙 가	鞭 누	鼓 디
鼓 코	雙 여름	鞭 누	雙	鼓 니	餘音	雙	鼓	鞭	鞭
鞭 치미	雙 기픈	鼓 므	雙	鞭 니		鞭	雙	鼓	鞭

與民樂의 杖鼓型

- |             |         |         |    |             |         |         |        |
|-------------|---------|---------|----|-------------|---------|---------|--------|
| (1) 鼓搖<br>根 | 鞭鼓<br>深 | 雙鞭<br>之 | 鼓木 | (2) 鞭鼓<br>風 | 雙鞭<br>亦 | 鼓搖<br>不 | 鞭抗     |
| (3) 雙鞭<br>有 | 鼓搖<br>灼 | 鞭鼓<br>其 | 雙華 | (4) 鼓搖<br>有 | 鞭鞭<br>賁 | 鼓鞭<br>其 | 雙   鼓實 |
| 鼓搖<br>源     | 鞭鼓<br>遠 | 雙鞭<br>之 | 鼓水 | (以下 略)      |         |         |        |
| 流           | 斯       | 爲       | 川  | 早           | 亦       | 不       | 竭      |
|             |         |         |    | 于           | 海       | 父       | 達      |

나. 完全終止形

醉豐亨의 完全終止形

내히	이	러	바래	가	누니
上五	上四	上三	上二	上一	宮

致和平(上)의 完全終止形

바래	래	가	누니
上五	上四	上三	上二 上一
			宮

다. 餘音(後奏)

2. 一句 三章

- (1) 불휘기픈남곤. (2) 부르매아니릴씨. (3) 꽃도코.  
(4) 여름하누니

시미기픈므른 · 마래아니그출씨 · 내히이러 · 바라래가누니

(第二章) (趙潤濟著 朝鮮詩歌史綱 174面)

- (1) 불휘기픈남곤. (2) 부르매아니릴씨. (3) 꽃도코. (4) 여름하누니(第一章)

시미기픈므른 · 마래아니그출씨 · 내히이러 바라래가누니

(第二章) (金思燁著 國文學史 319面)

根深之木 風亦不抗 有灼其華 有賁其實

가. 三句의 漢譯詩

龍飛御天歌 第一百十章

- ① 四祖便安위물겨샤 ② 현고돌 올마시뇨 ③ 멋間지빅  
④ 사르시리있고

九重네드르샤 · 太平을누리심제 · 이쁘들 · 닛디마르쇼셔  
 (趙潤濟著 朝鮮詩歌史綱 179)

- ① 四祖莫寧息 ② 幾處徙厥宅 ③ 幾間以爲屋

入比九重厥 · 享此太平日 · 此意願母望

龍飛御天歌 終章

千世 우희미리定호산 漢水北에 累仁開國호샤 卜年이 무  
 업스시니 聖神이니수도 敬天勤民호샤 더욱구드시리이다 (餘音)

님금하오르쇼셔 洛水에 山行 가이셔 하나빌리드니잇가

千世默定漢水陽 累仁開國 卜年無疆(千世章)

子子孫孫 聖神雖繼 迺益永世(子子章)

嗚呼 國王監此 洛表遊歸 皇祖其恃(嗚呼章)

나. 致和平(下)의 三句

불희(十一井間) 기 폰 남곤(二十一井間)

복르매(十一井間間) 이니될씨(二十一井間)

꽃도코(十一井間) 여름하느니(二十一井間)

다. 醉豐亭 第七十三章과 歌曲

生	靈	이	湖	喪	홀				
東窓	이		밖		는				
						씨			(醉豐亭)
						나			(歌曲)
田	祖	를	고	타	시	니			
노	지		우		진	다			
고			지						
							간	姓	(醉豐亭)
							소	치	(歌曲)
								는	
亂	後	에	致	治	爲	하	시	니	
아	농		상	통		아	일	어	는
희			기			니			
									(醉豐亭)
							나		(歌曲)

라. 三句體로 된 노래

鄭石歌

딩아돌하 當숙에 겨사 이다 딩아돌하 當숙에 겨 사이다.

先王 盛代에 노 니수와지 이다(完全終止)

思母曲

호미도 놀히어신 마르논 날기티 들리도 없 새라.(餘音)

아바님도 어시어신 마르논 위 덩 더등성(完全終止)

어마님기티 괴 시리어빠라.(完全終止, 餘音)

아소님하 어마님기티 괴 시리 어빠라.(完全終止, 餘音)

滿殿春

(前腔) (山河千里國에 · 佳氣  
鬱葱葱 하 샷다.(餘音三十二井間)

(金殿九重에 · 明日月 하 시니.

(君臣千載에 會雲龍이 · 샷다.(完全終止 餘音十六井間)

(熙熙庶俗은 春臺上이 어늘.

(濟濟群生은 壽域中이 · 샷다.(餘音六十四井間)

(附葉) 濟濟 群生은 · 壽域中이 샷다.(餘音六十四井間)

(中葉) 高厚 無私 하샤 · 美睨 疎 하 시니.

祝堯皆是 太平人이 · 샷다.(完全終止 餘音十六井間)

(附葉) 祝堯 皆是 · 太平人이 샷다.

(小葉) 熾而 昌 하 시니 · 禮樂 光華 · 邁漢唐이 샷다.(餘音六十四井間)

以下 後腔 · 附葉 · 中葉 · 附葉 · 小葉 · 大葉 · 附葉 · 中葉 · 附葉 · 小葉은 그것을 省略한다. 前腔 · 後腔 · 大葉 等等은 樂學軌範 卷五 鳳凰吟中機에서 其他는 世宗實錄 卷一四 鳳凰吟에서 取한 것이다. √표는 十六井間, · 은 三十二井間을 表示한 것이다.

3. 每句의 細分

(가) 第一句

(1) 불휘(五井間) 기픈남군(十一井間) 第二章

(2) 周國(五井間) 大王이(八井間) 第三章

(3) 高德이(五井間) 裏 하 거든(十一井間) 第 章

(4) 生靈이(五井間) 凋喪 할찌(十一井間) 第七十四章

(5) 突厥이(五井間) 入冠 하 나(八井間) 第七十五章

(6) 天倫을(五井間) 姦臣이 하 수되(十一井間) 第七十三章

- (7) 太子를(五井間) 하늘이 곧히샤(十一井間)第八章
- (8) 玄武門(五井間) 두도터(十一井間)第四十三章

例 外

- (楊子 江南을(八井間) 씨리샤(八井間)第十五章
- (員의지비(八井間) 가샤(八井間)第二十八章
- 周國(五井間) 大王이(八井間) 幽(三井間)
- 谷에(五井間) (第三章)
- 奉天(五井間) 討罪실씩(八井間) 四方(三井間)
- 諸候一(五井間) (第九章)

(나) 第二句

- (1) ㅅ르매(五井間) 아니 될씨(八井間) ㅅ(三井間) 도코(五井間) 第二章
- (2) 天下를(五井間) 맞드릴씨(八井間) 西水(三井間) 마시(五井間)
- (3) 六百年(五井間) 天下(八井間) 洛(三井間) 陽에(五井間) 第十四章
- (4) 谷에(五井間) 사르샤(八井間)<sup>V</sup>
- (4) 業을(五井間) 第三章
- 四方(三井間)
- (5) 諸候——(五井間) 몰더니(八井間)<sup>V</sup> 聖化(三井間) 소라샤(五井間)

(다) 第三句

- (1) ㅅ도코 여루하느니 第二章
- (2) 聖孫을 내시니이다 第八章
- (3) 七代之王을 뒤마마리잇가 第十五章
- (5) 이곧겨고대 後△날다르리잇가 第二十六章
- (5) 岐山을마삼도 하늘쁘디시니 第四章

	醉 豐 亨	致 和 平 上	同 下	歌 曲
初 句 前 部	五 井 間	十 三 井 間	十 一	十 一
初 句 後 部	十 一 井 間	十 九	二 十 一	二 十 一
二 句 前 部	五 "	十 三	十 一	十 一
二 句 後 部	八 井 間	十 六	二 十 一	十 六
三 句 前 部	八 "	十 六	十 一	十 六
三 句 終 部	十 一 "	十 九	二 十 一	二 十 一

4. 結 論

한글로 된 醉豐亨과 致和平은 一章을 前部와 後部の 終止形이 一定不變하여 前部와 後部로 區分되나, 前部는 半終止로 되었고, 後部에 이르러 비로소 完

全終止가 보이며 後部끝에만 餘音(後奏)이 달렸다. 또 前部와 後部를 합친 全體가 한 장단型을 이루어 그것이 完全한 一章임을 보여준다. 이에 比하면 漢文譯詩에 부친 與民樂에서는 醉豐亨에서와 같이 前部와 後部の 終止形이 各各 다르나, 餘音이 전혀 없고 前部の 장단型이 後部에서 反復되는 點에서 다르다. 樂學軌範을 보더라도 醉豐亨과 致和平에서는 前部와 後部를 합친 것이 一章으로 불렸고(例 불휘章), 與民樂에서는 前部와 後部가 各各 獨立된 章으로 불린 것(例 根深章과 遠源章)을 發見한다.

다음 龍飛御天歌의 一首의 前部와 後部는 三句로 成立되었다고 본다. 그 理由는(1)漢文의 譯詩에는 四句體와 三句體 두가지가 있는데 其中 三句體가 原詩形에 더가깝다. (2)醉豐亨 特히 致和平(下)에서는 各 三句에 부쳐진 樂句의 長이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리듬도 같아서 그 어느 한 樂句만을 特別히 二分하여 一章의 前部를 四句로 區分할 수 있기 때문이다.

特히 醉豐亨의 三句가 歌曲의 첫三章과 그 樂句의 長이와 리듬에 있어서 恰似함이 注目된다. (3)三句로 된 例는 龍飛御天歌外에 時調·北殿·鄭石歌 等を 들 수 있으며, 歌曲·滿殿春의 前腔과 後腔은 五章句로 되었다. 이 같이 四句가 아니고, 三句 또는 五句 이 같이 奇數의 句로 一章이 이루어진 노래가 많은 것은 우리 노래(詩)의 特徵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끝으로 各句는 二部分으로 細分될 수 있다. 卽 第一句는 大概 五井間(二字 또는 三字)과 十一井間(四字 乃至 六字)로 되었고(十六井間 一行을 이룬다), 第二句는 大概五井間(大概 三字)과 例外없이 八井間으로 되어 十三井間을 이루고 十六井間 一行에서 三井間을 남기고 그 나머지 三井間을 第三句로 넘긴다. 第三句는 前句末에서 넘어온 三井間을 包含한 八井間과(三字보다 그 以上の 字數를 담는 경우가 더 많다) 十一井間으로 되었다. 이같은 三句의 區分法은 歌曲의 첫 三章의 그것과 같은 것이 注目된다.

### 〈閉會辭〉

보람찬 심포지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傾聽하여주시고, 또 發表와 討論에 應하여 주신 여러 先生任계 다시금 感謝드립니다. 國學과 東洋學의 發展을 圖謀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심포지움은 每年 課題를 달리하여 마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다 積極的인 協力을 고대하는 바입니다. 本校 教授會館에서 간단한 飲食을 나누며 여러분과의 懇談의 기회를 갖고자 하오니,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本 研究所 主催의 第二回 東洋學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